

남북협상 연구*

김구의 민족자주통일 이행과 좌절

유기홍(경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특히 김구의 민족자주통일이 어떻게 이행되고 왜 좌절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족자주통일의 이행은 대화, 평화, 통일정부의 구상에서 출발했으나 남북 각각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되었다. 김구의 민족자주통일은 복잡한 정치정세 변화 속에서 국내정치 요인과 북한요인에 의해 부침을 겪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김구의 통일론은 실패했지만 완전한 실패는 아니며 오늘날 그의 통일론은 확산되고 있다. 1948년 남북협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향후 통일과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주제어: 김구, 남북통일, 남북협상, 연석회의, 미군정

* 이 글은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2017)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2018년은 남북연석회의 70주년, 남북 분단국가 수립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정주년을 맞아 남북협상의 좌절과 분단국가의 수립을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김구 등은 북한의 김일성 등에게 ‘남북정치지도자회의’ 성격의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의제는 ‘통일정부 수립방안을 비롯한 제반문제’였다. 김일성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지는 수정제의를 했다. 양측은 서신교환과 수정제의 속에서 김구 등이 평양에 들어갔다.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11일 동안 김구 등이 평양에 체류하면서 회담명칭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회담이 개최됐다.

협상의 제의배경과 의도는 달랐다. 남측은 나라의 분열만을 막겠다는 것이 강했다. 북측은 단독정부 수립의 명분 축적의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론적으로 북측의 김일성은 세 가지 회담을 근거로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자신들만의 정부를 정통성을 가진 중앙정부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이승만 등은 남측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양측의 정통성 시비는 체제경쟁으로 이어져 70주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대립과 대결의 토대로 작용해 왔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함으로써 역사는 발전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구의 민족자주통일이 어떻게 이행되고 왜 좌절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다. 1차 문헌을 중심으로 하되 김구 연구 종사자 및 연구단체의 자료모음을 적극 활용한다. 시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해방 3년사에 집중한다. 구성은 2장에서 김구의 민족자주통일론을 요약하고, 3장은 자주통일의 이행으로서 남

북협상을 고찰하고, 4장은 남북 각각의 분단정권 수립과정을 통해 자주통일의 좌절을 분석한다. 5장은 결론이다.

2. 김구의 민족자주통일론

1) 민족자주통일론의 형성

김구가 추구했던 민족자주통일론의 기원은 해방 이전인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지향한 자주독립국가 구상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자주독립국가란 1930년 1월 임시정부의 이상을 실현할 행동주체로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당의(黨意)와 1941년 11월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이 발표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¹⁾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한반도에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로 해석된다.

자주독립국가 구상은 민족에 의한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라면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전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자주독립국가 구상의 정신은 해방 정국에 있어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중후반으로 치달던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1) “한국독립당의 당의(黨意)에는 혁명수단으로 원수 일본의 모든 침략세력을 박멸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 민주 국가의 건설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는 총강, 복국, 건국의 3장 24개항을 바탕으로 정치는 민주적으로 경제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8쪽.

에서는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이 중심이 된 3거두회담이 개최되었다. 한반도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독립이 허용될 것이라는 사실상 자주독립의 잠정적인 유보 내용을 담은 카이로 공동선언²⁾이 발표되었다.

해방이 가까워올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다툼은 점차 가열화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 회담에서 한반도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한반도가 좌와 우,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이다.

한반도의 자주적 독립과 한민족에 의한 국가건설을 소망했던 임시정부의 소망은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다. 김구의 민족의식이 요구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듯했다. 자주독립국가 구상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전 민족의 단결을 통한 통일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던 이가 바로 백범 김구였다. 백범에게 민족의식은 민족주의 그 자체였으며 민족주의는 백범의 사상과 삶을 일관되게 지탱시켜온 정신적 근본이었다.³⁾

백범은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따지기보다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구의 신념이 민족자주통일론의 형성에 바탕이 되었다면 당시 국내의 여러 정세들은 그가 민족자주통일 방안을 확고히 하는 데 주요원인이 되었다. 첫 번째는 유엔에 대한 신뢰였다. 그것은 미국에서 3상

2) 위의 글, 20쪽.

3) 임형진, “민족통일론과 백범의 자주적 민족국가론,” 『민족사상연구』, 11권(2003), 367쪽.

4) 위의 글, 369쪽.

회담 결정을 파기하고 조선 문제의 해결을 위한 4국 회의를 열자고 제안⁵⁾한 것에 근거하고 있었다. 김구는 4국 회의를 통해 통일정부의 수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및 한민당과의 관계 파탄에 있었다. 김구는 우익의 단결을 위해 이승만과의 협력을 중시했고 한독당과 한민당의 합당을 역설했다. 그러나 1947년 12월 한민당의 장덕수가 살해⁶⁾되면서 한독당과 한민당의 관계는 틀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김구를 장덕수 살해의 배후자로 보았고 이승만은 이를 계기로 김구와의 연대를 중단해 버렸다. 이승만은 독자적으로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김구로서는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는 긴 세월 동안 독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 앞에서 단정노선이라는 조국의 분단을 인정하는 것은 그간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김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단이 눈앞에 닥치기 시작하자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통일정부수립과 남북협상에 매진하였다.⁷⁾ 복잡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민족자주통일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민족자주통일론에서 김구가 강조한 것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2) 민족자주통일론의 주장

첫 번째는 민족주의로서 혈연의 동일성과 연속성, 그리고 그것을

5) 서중석, “남북협상과 백범의 민족통일노선,”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서울: 백범학술원, 2003). 144쪽.

6) 위의 글, 145쪽.

7) 위의 글, 146쪽.

기초로 한 역사와 문화의 동일성 등을 강조하면서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종속과 자주로서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소련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자주와 자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⁸⁾ 남과 북이 현재의 제한적인 종속 환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고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세 번째는 전쟁과 평화로서 김구는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의 제약에서 벗어난 뒤에도 여전히 전쟁과 평화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았다.⁹⁾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간섭이 사라진다면 남과 북이 서로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 통일의 길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토대한 것이다. 전쟁보다는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평화론의 기대와 전망이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족자주통일국가의 염원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민족자주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한 핵심 과제인 남북협상에 관한 것이다. 김구는 평화통일을 위한 최후의 방법은 결국 남북협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구는 남북협상을 강조하면서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은 남북회담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국제적 제약상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48년 남북연석회의는 통일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남북협상도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점 등을 함께 주장했다.¹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남북 간 평등한 협상의 진행과 민심에 대한

8) 도진순, “1948~49년 김구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 『정신문화연구』, 27권 4호 (2004), 116쪽.

9) 위의 글, 118쪽.

10) 위의 글, 121쪽.

이해였다. 1949년 중국의 국공회담이 결렬되고 공산당이 중국을 석권하기 시작하면서 남한정부와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남북협상이 곧 중국과 같이 되는 길이라는 비판과 공격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김구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민심에 대한 이해와 선정(善政)을 통해 공산당 우위를 방지하고 남북 간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김구의 민족자주통일론은 해방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자주적인 민족독립국가의 건설에 대한 염원에 잘 나타난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분단된 남과 북의 현실에 입각한 통일방안이기도 하다. 김구는 민족자주통일론을 바탕으로 남과 북을 오고가며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노심(勞心)이었다.

민족자주통일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신뢰와 그에 따른 협조가 기반이 되는 협상의 진행이었다. 김구는 이를 위해 자신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38도선을 넘었다.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다.

3.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협상

1) 민족세력의 결집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는 극심한 정세혼란이 지속되었다. 1947

11) 위의 글, 122쪽.

년 9월 2년여 간 한반도 문제를 상의하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미국과 소련의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좌우합작운동의 부진 및 민족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여운형이 피살되었다. 남과 북에서는 각각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 지고 있었다.

한반도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시기 중도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지도자회담, 즉 남북협상 안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곧 민족통일운동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대표적 중도와 정치인이었던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자주연맹은 12월 20일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¹²⁾

민족자주연맹이 설립된 이후 1948년 1월 우파와 중도파의 수장이었던 김구와 김규식은 미국과 소련 양국군대의 철수, 남북요인회담과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¹³⁾ 김구에게 있어 민족자주연맹과의 합작은 통일국가수립 운동이 점차 그 빛을 잃어 가던 시기 민족국가 건설의 의지를 다시금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2월 16일 북한의 정치지도자인 김일성과 김두봉 앞으로 남북지도자 회담을 공식 요청하는 김구와 김규식의 공동서한이 발송되었다. 남북 회담 준비를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자 김구는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여론형성에 더욱 매진하였다. 2월 10일 삼천만 동포에게 읊고 함이란 발표문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구는 3월 12일 김규식, 김창숙, 조소앙, 조성환, 조완구, 홍명희 등과 함께 “7거

12) 서중석,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서울: 한울, 2000). 94쪽.

13) 위의 글, 128쪽.

두성명”을 발표하였다.¹⁴⁾ 남측에서 남북협상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던 당시 북한 측은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었다. 김일성이 남쪽 지도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경계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김일성은 3월 25일 남북지도자회담이 아닌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역으로 제안해 왔다.¹⁵⁾ 정치지도자 간의 회담을 넘어 민족문제와 통일에 있어 보다 다양한 성격을 지닌 정치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한 것이다. 김일성이 역으로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회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김구와 김규식 측도 우파, 중도파, 민족주의 계열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연석회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에 남북연석회의 개최가 확정되었다.

2) 남북연석회의와 4자회담

본 회담이 개최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4월 2일 이승만은 성명서를 통해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남북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응하는 것은 소련의 의도에 동조하는 것”¹⁶⁾이라고 비판했다.

미군정도 남북협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군정 측은 남북협상의 의도를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파악했다.¹⁷⁾ 미군정

14)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90쪽.

15) 위의 글, 159쪽.

16) 위의 글, 94쪽.

은 하지중장을 중심으로 김구와 김규식에게 지속적으로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만류했다.

이와 같은 반대움직임에 대한 김구와 김규식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반 단선, 통일세력의 대표로서 가는 것이며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통일세력의 단합을 위해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김구는 4월 15일, 김규식은 21일 각각 북행길에 올랐다.¹⁸⁾ 1948년 4월 19일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는 우과 진영 및 중도 진영 26개 단체 대표 166명과 좌파진영 15개 단체 230명 등 총 41개 단체 369명의 대표가 모여 민족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연석회의 예비회담과 본회담이 개최되었다.¹⁹⁾

19일 오전에 개최된 예비회담에서는 연석회의의 진행절차와 방침 등이 논의되었다. 김일성은 연석회의의 기본목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²⁰⁾ 오전 예비회담이 종료되고 오후 6시부터 재개된 본회담에서는 회의주석단 선출, 안건 상정,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서기부, 문헌편찬위원회 선거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측 지역 대표자들이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9일 본회담은 약식으로 진행되었고 20일 하루를 휴회한 뒤 21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²¹⁾

17) 위의 글, 95쪽.

18) 위의 글, 97쪽.

19) 위의 글, 98쪽.

20) “첫째 미제의 앞잡이인 유엔조선위원단을 몰아내고 유엔 총회 및 소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것, 둘째 국토와 민족을 양단하는 단선단정을 반대할 것, 셋째 소미 양군이 즉시 철군할 것, 넷째 양군 철군 후 조선인민의 자주성 위에서 비밀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 1993), 336쪽.

21)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102쪽.

4월 20일 김일성과 김두봉은 김구를 예방하였다. 김구는 회의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김일성과의 단독회담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은 21일에도 다시 김구를 방문하여 회의 참석을 종용했지만 김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회의개최 3일째가 되던 22일 김구도 조소앙, 홍명희 등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규식은 이날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구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민족의 유일한 최대과업은 통일의 달성이며 이는 단선단정 분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4월 22일 오후회의가 진행되던 중 남측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불만사항은 지정된 대표들이 미리 작성해 온 원고를 10분 정도씩 읽고 내려오는 것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승만에 대한 비판과 단정에 반대하기만 하는, 즉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방안마련 등이 없이 친편일률적인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4월 23일에는 “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 “남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전조선 동포들에게 격함”, “미국과 소련 양군의 철병을 요구하는 요청서” 등이 채택되었다.²²⁾

문제는 이들 채택문서 내용 다수도 남측 참가자들이 불만을 표시한 것과 같은 이승만과 남한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북한 지역의 체제에 대한 선전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남측 참가자들이 보았을 때 이 문서들의 내용은 민족통일의 방안마련이라는 남북협상의 본래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배경에는 채택문 대부분에 단선단정 반대, 외국군대 철수, 자주

22) 위의 글, 106~107쪽.

독립국가 실현 등과 같은 민족자주통일국가를 위한 근본적인 공감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이 처음부터 회의 자체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극심한 반대가 없었다는 점도 이들 문서 채택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²³⁾

김구와 김규식이 방북을 통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연석회의가 아니라 통일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에 대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남북지도자 회담이었다. 북측의 정치지도자들 역시 연석회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을 중심으로 4자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공감대를 바탕으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남북지도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지도자회담과 관련하여, 4월 26일에는 4자회담, 27일에는 남북 주요 정치지도자 15인이 참석한 지도자협의회, 28일에는 김규식과 김일성의 개별회담, 30일에는 제2차 4자회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4월 24일 저녁 북조선인민회의 의장 김두봉의 초대로 김구, 김규식, 조소앙, 홍명희 등과 김일성이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이 오고갔다. 26일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사이에 통일문제에 대한 본회담이 진행되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통일에 대한 남북지도자의 공동성명, 남북통일을 위한 공동대책기관 수립, 남북통일을 위한 조직문제의 토의를 제기하였다.²⁴⁾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북측에서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4자회담에서는 공동성명 합의 문제만 북측에서 들어주겠다고 했을 뿐 다른 두 가지는 추후 회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미루었다. 공동

23)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8). 66~67쪽.

24) 서중석,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218쪽.

성명서는 30일 4차회담에서 먼저 승인을 거친 뒤 곧바로 열린 15일 남북지도자협의회에서 재통과, 이후 북전정당사회단체대표들의 서명을 통해 발표되었다. 남북요인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소련의 제의대로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것, 둘째, 외군철군 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음을 상호 약속함, 셋째, 외군철거 이후 전 조선에서 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 등을 담고 있었다.²⁵⁾

공동성명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담지는 못했다. 남북지도자 간의 직접회담을 통해 통일문제의 향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 남북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으로 구분된 협상을 마친 남측 대표단은 5월 초 귀환 길에 올랐다. 김구와 김규식은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고 4일 귀환 길에 올라 5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자신들의 귀환 이후 남한정부와 우익 인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6일 김구와 김규식이 발표한 공동성명서²⁶⁾의 일부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남북협상에서 즉각적인 통일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구와 김규식의 예상대로 이승만을 비롯한 남측의 우익세력들은 남북협상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승만은 남북협상에 대한 소감

25) 위의 글, 219~220쪽.

26)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거두어진 성과를 가지고 최후의 성공을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애국동포 전체가 일치하게 노력하는데 있을 뿐이다. 우리는 행동으로써만 민족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는 무엇이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116쪽.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거에 대해서는 인구 3분의 2 이상을 가진 남한에서 열리는 선거가 민족을 대표하는 선거가 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 수립되는 정부가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²⁷⁾ 사실상 남북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발언이었다.

미군정 또한 남북협상을 비판했다. 5월 3일 하지는 장문의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협상이 크렘린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의 선전장이며 김구와 김규식은 공산당의 모략과 연막작전에 속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²⁸⁾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민족통일 정부수립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했던 김구와 김규식의 노력은 남한 각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김구와 김규식이 귀환 한 며칠 뒤 남한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개최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를 계기로 김구와 김규식에게 북쪽에도 새로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또한 자신들의 노력에 지지의사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민족통일의 길이 점차 현실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4. 민족자주통일론의 좌절

1) 국내정치요인

김구와 김규식이 자주적인 정신에 입각한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을

27)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117쪽.

28) 위의 글, 118쪽.

위해서 남과 북을 오고가며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여정은 점점 좌절의 길로 빠지고 있었다. 민족자주통일국가의 건설은 크게 2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정치 요인, 즉 한국의 여러 정치세력의 민족통일국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 그에 따른 분열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정치요인이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지도부가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이유로 들어 북한 단독정부수립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남북통일국가 구성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국내정치요인은 크게 국내정치의 주요세력, 특히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정세력, 조소앙, 안재홍과 같은 기존 남북협상 지지에서 남한단독정부 수립지지로 노선을 변경한 세력 등으로 나뉘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단정세력들은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독촉국민회, 한국민족대표자회, 한국민족대표단 등 여러 기구를 통해 정치적 조직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유엔 소총회를 앞두고는 과도입법회의에서 남한만의 단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²⁹⁾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조선지역 내에서의 총선실시” 즉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남한 단독선거 준비가 추진되었다. 3월 1일에는 하지 사령관이 남한 지역에서 5월 9일 총선을 실시할 것을 공포했으며 3일에는 국회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7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공포되고 22일에는 선거법 시행세칙

29) “과도입법회의에서 1948년 2월 19일 민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단선 지지의원 43인이 유엔 소총회 가능 지역만이라도 선서 실시를 진행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고 23일 이 동의안이 40대 3으로 통과되었다.”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18쪽.

이 공포되는 등 총선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³⁰⁾ 5월 10일 남한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시행되었다. 선거결과 제헌의회 구성은 한민당, 이승만세력, 무소속 등 3개의 계파가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특히 총선 자체가 이승만세력과 한민당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다. 사실상 단독선거에 의한 단독정부를 반대하던 남북협상파는 제헌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총선 이후인 7월 20일에는 재석의원 196명 중 180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승만이 초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복잡한 과정 속을 거치면서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³¹⁾ 김구가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던 그간의 결과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단정세력의 여러 시도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남북협상을 지지하다가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남북통일운동의 좌절에 또 다른 주요 국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소앙과 안재홍을 들 수 있다. 이들 세력은 총선에는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지만 선거에 따른 결과에 의한 불가피성을 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조소앙은 선거가 끝난 직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불가피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남북협상에 의한 남북한의 총선거는 아니었지만 “국민의 선택인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30) 위의 글, 121쪽.

31) 위의 글, 123~124쪽.

입장을 취한 것이다.³²⁾ 조소앙의 노선이 변화함에 따라 삼균주의청년동맹의 남북협상에 대한 인식과 노선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삼균주의청년동맹은 1948년 5월 10일 “남북회담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남북회담의 기본취지는 찬성하면서도 남북회담과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의 철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명시되지 못했으며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반탁 진형의 혁명세력을 배제하는 민족분열적인 사고를 보여주었다고 혹평했다.³³⁾ 조소앙의 세력이 기존 남북협상세력에서 이탈하여 단독정부 지지로 입장을 바꾼 시기 안재홍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안재홍은 총선 1년 뒤에 기고한 글에서 “갑자기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는 어렵고 민족 총의는 정부가 아니고서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38선 이남만이라도 정부를 세우는 것도 차선책으로 요당한 조치”³⁴⁾라고 주장했다. 통일문제 및 한반도 정부수립에 있어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남북협상에 있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동시에 실패로 끝났다고 본 것이다.

국내정치적요인은 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남북협상과 그에 따른 민족통일운동에 대단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단독정부 수립 세력은 자신들의

32) “조소앙은 선거 당일 삼균주의청년동맹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정권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점진주의적 접근에 근거하여 남쪽에서 삼균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점차 북쪽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128쪽.

33) 위의 글, 129쪽.

34) 안재홍, “1주년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49년 8월 15일.

정치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한단독총선거 실시 및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운동의 견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조소앙, 안재홍과 같은 기존 남북협상지지 세력들도 남한단독총선거 실시 및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과 같은 현실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정부 수립은 어렵다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국내정치적요인은 북한정치요인과 맞물리면 김구가 한민족의 자주독립통일국가 염원을 담아 추진해 나갔던 민족자주통일운동을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북한정치요인

해방 이후 남쪽에서 여러 정치세력들에 의해 급격한 정세변화가 나타난 것과 다르게 북쪽지역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을 위한 작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1945년 8월 14일 38도선 설정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소련이 받아들인 이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립되었다. 1946년 3월에는 북조선5도행정국이 재발족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³⁵⁾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김구와의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에 나서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지역의 단독정부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

35)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135쪽.

며 이를 근거로 한반도 이북지역에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정당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류는 남쪽 지역에서 5·10 총선이 실시되고 제헌국회가 구성되자 북한에서도 1948년 6월 2일 북로당 정치위원회회의에서 헌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통일적인 최고입법기구를 세우기 위해 총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³⁶⁾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남쪽지역의 민전 대표들도 참가한 제2차 남북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남북한 총선거에 바탕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이 결정되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었고 9월 9일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북쪽에도 단독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김구가 우려하던 한반도 이남과 이북지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지닌 두 개의 단독정부가 들어선 것이었다. 사실상 그동안 통일국가수립을 위해 매진해 온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감과 동시에 통일국가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3) 민족자주통일론의 좌절

1945년 해방이전부터 김구는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이고 하나 된 통일국가 수립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여러 노력들을 진행시켜 나갔다. 해방 이후 그의 신념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굴복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협상이라는 우리민족 스스로에

36) 위의 글, 137쪽.

의한 통일국가수립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김구의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우리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분열에 의해 좌절되었다.

해방정국에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남과 북의 위정자(爲政者)들은 김구의 통일국가수립과는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남쪽의 이승만과 북쪽의 김일성은 김구가 주장하는 통일국가수립이 곧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은 남쪽을 점령한 미국과 북쪽을 점령한 소련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한 민족, 두 개의 정부수립이라는 김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일국가수립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 남북협상이라는 대안은 점차 남과 북 모두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을 1년여 앞둔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탄에 의해 암살됨으로써 그와 그가 꿈꾸던 민족자주통일의 길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5. 결론

1945년 해방 이후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는 한반도 접수 및 민족회담을 통한 과도정부 수립과 같은 3단계의 정부수립 안을 바탕으로 민족자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했다. 김구에게 민족자주국가의 수립은 전 민족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족단결의 총본산과 같은 것이었다. 김구의 의지는 미군정의 반대 속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설사가상으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는 5년간 4개국에 의한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미군정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 상정 및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 방북하기로 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한 소련군정의 입경거부는 통일정부 수립에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정국분위기는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한반도 가능지역의 선거 실시, 즉 남한에 한정된 총선을 결정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 위기를 고착시켰다. 조국의 분단 현실화와 민족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서 김구는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그것은 민족의 힘으로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다.

김구는 1947년 당시 김규식을 중심으로 중도파와 민족계열이 추진하고 있던 남북협상에 합류했다. 2월에는 북한 최고정치지도자인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연석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김일성과 김두봉이 남북연석회의가 아닌 정당사회대표자단체회의 형태를 역 제안하기는 했지만 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한 마지막 노력의 서막이 열린 것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런 통일의 염원을 안고 38도선을 건너 북으로 향했다. 사실 김구와 김규식은 사회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가 만나 통일문제를 단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북요인회담이었다.

4월 19일 남북연석회의가 시작된 이후 26일부터 30일까지 남북지도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4인은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였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남북지도자 간의 직접협상을 통해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지

도자 회담의 처음이자 끝이었다. 남북협상이후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김구와 김규식을 소련과 북한 정치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한 무능력한 지도자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조소앙과 안재홍 같은 기존 남북협상 지지인사들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미군정도 이와 같은 여론에 동조했다. 더 이상의 회담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세력은 남북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한에서는 남한 단독의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남한단독정부의 수립은 북한에게 있어서도 자신들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미 북한에서도 자신들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여러 준비들은 이미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협상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한반도는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민족분열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김구는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민족을 최우선시하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독립에 의한 민족통일 국가의 수립을 소원해 왔다. 비록 그의 소원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이해논리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김구는 남북협상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헌신이었다. 비록 그의 소망과 노력들은 강대국과 남북한 위정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지지 못했지만 오늘날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김구의 민족자주통일의 이행과 좌절은 국내 및 북한정치 요인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실패했지만 영원한 실패는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오늘날 김구의 통일론이 확산되는 느낌이다. 본연구의 한계는 김구의 통일론이 좌와 우를 넘나드는 현실주의적 인지, 사상과 이념에 토대한 이상주의적인지 명확한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사상가, 정치가로서 김구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제기한다.

■ 접수: 7월 16일 / 수정: 8월 6일 / 채택: 8월 7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_____, 『김일성 선집』, 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_____, 『김일성 저작선집』, 1권~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세기와 더불어』,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정리근,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허정숙, 『민주건국의 나날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 신문

『노동신문』, 1947년 6월 12일, 10월 5일, 1949년 6월 28일.

『평북노동신문』, 1948년 1월 24일, 1월 29일, 2월 7일, 3월 4일, 3월 6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서중석,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2』(서울: 한울, 2000).

_____, “남북협상과 백범의 민족통일노선,”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서울: 백범학술원, 2003).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8).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下』(서울: 중앙일보, 1993).

2) 논문

도진순, “1948~49년 김구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 『정신문화연구』, 27권 4호 (2004).

임형진, “민족통일론과 백범의 자주적 민족국가론,” 『민족사상연구』, 11권

(2003).

유기홍,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3) 신문

안재홍, “1주년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49년 8월 15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eloff. Max,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4-1951*(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Dobbs. Charles M., *The Unwanted Symbol : America Foreign Policy. The Cold War, and Korea. 1945-1950*(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1).

Jun, Sang-In, “State-Making in Southe Korea, 1945-48: U.S. Occupation and Korean Development”(unpub., Ph. diss, Providence, R. I.: Brown University, 1987).

Oh, Bonnie B. C., *Korea Under the America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Westport: Praeger Publishers, 2002).

Ree, Erik Van,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Oxford : St Martin's Press, 1989).

Soviet Union and Korean Question(London: Soviet News, 1950).

Study on inter-Korean negotiations: Implementation and Frustrations in Kim Koo's National Independent Unification Efforts

Yoo, Ki Hong(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Kim Koo's national independent unification efforts were implemented as well as impeded through the research methodology of literature analysis. The implementation process started from the idea of dialogue, peace and unified government. However, this process was met with difficulty when the two Koreas established separate sovereign governments. The implementation and hardships were triggered by both domestic politics and North Korean factors. History is an endless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hile Kim's unification effort resulted in a failure but it cannot be concluded as a complete failure. In recent years, his unification efforts are gaining attention. The limit of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no clear analysis of whether Kim's national independent unification effort was based on realism that crossed the boundaries of

left and right or idealism based on ideology. I suggest the future research theme to further expand to include research on Kim Koo as a thinker and a politician.

Keywords: Kim Koo, inter-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negotiations, joint meetings, US military government